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

崔惠珠*

- | | |
|---------------------|--------------------------|
| I. 머리말 | IV.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의 성격 |
| II. 조선고서 간행단체의 설립 | V. 맺음말 |
| III. 각 단체의 조선고서 간행물 |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들이 식민통치에 협조하기 위해 추진한 고서간행사업의 전모를 밝히는데 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재조일본인들은 조선고서가 조선을 연구하는 ‘유일한 자료’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가령 구한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수집 간행할 단체를 만든 것이다. 이 논문은 고서 간행단체들의 설립목적과 운영방법, 그리고 간행물의 특징과 간행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조선고서 간행단체인 조선고서간행회, 조선연구회, 자유토구사의 설립목적과 운영진의 구성, 간행물 배포방법 등을 정리했다. 다음 각 단체의 조선고서 간행물의 종류와 내용을 분류하여 그 특징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각 고서 간행단체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그 성격을 분석했다.

결국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필요했던 간행사업은 소네 통감, 데라우치 총독, 사이토 총독의 전폭적인 도움이 아니어서는 추진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였다. 각 단체에 임원으로 간여한 일본인들은 통감부나 총독부의 관료, 본국의 정치인, 교수, 학자, 언론인, 식민지 수탈기구의 수뇌 등 주요인물을 망라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 개인이 만든 단체의 개인 사업이 아님을 입증해 준다.

• 주제어

조선고서간행회, 조선연구회, 자유토구사, 샤쿠오 순조, 아오야기 쓰나타로, 호소이 하지메, 재조일본인, 고서, 소네 통감, 데라우치 총독, 사이토 총독

*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일제는 조선을 병합시키기 전에 동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조선사회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1906년 舊慣制度를 조사하고 1911년 사료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통감부나 총독부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에 주재하는 재조일본인들에 의해 조선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그들은 연구 단체를 결성하고 연구회나 강연회를 통해 각 방면에 걸쳐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 민간단체는 조사 연구와 병행하여 조선 통치에 필요한 자료로서 고서 간행사업을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조선 고서가 조선을 연구하는 ‘유일한 자료’라는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한말 통감부 시기와 병합이후 재조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고서간행 단체는 1908년의 조선고서간행회, 1910년의 조선연구회, 1920년의 자유토구사가 있다. 이 단체들은 통감부나 총독부의 지원 아래 간행사업을 추진했다. 이 간행사업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고서는 물론 일본인의 편견으로 왜곡된 고전들이 각 방면에 보급되어 이른바 식민사학 형성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에 맞서 최남선은 1910년 조선광문회를 설립하여, 1911년부터 18년까지 20여 종의 고전을 『조선총서』(〈표 1〉 참조)로 간행했다. 그러나 고서간행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워 간행사업을 포기했다.²⁾

지금까지 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과 관련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³⁾ 이 시기 일본인의 고서번역 및 출

1) 박현수,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사회·문화조사활동」, 『한국문화인류학』 12,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일제의 식민지 조사기구와 조사자」, 『정신문화연구』 21-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2)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 한국사학사학회, 2001.

3) 禹快濟, 조선연구회 고서진서간행의 의도 고찰, 『민족문화연구논총』 4,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高崎宗司 저, 최혜주 역, 조선민족성악론, 『일본망언의 계보』, 한울, 1996; 서신혜, 일제시대 일본인의 고서간행과 細井肇의 활동,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판의 전모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고, 다만 최근에 재조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조선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⁴⁾가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그 일환으로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서간행사업을 위해 설립된 각 단체의 설립운영과 간행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운영방법 및 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간행물의 종류와 어떤 책들이 어떠한 필요에서 번역되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고서간행사업의 성격에 대해 정리한다. 이를 통해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에 의한 고서 간행사업의 의미와 문제점을 밝혀보려고 한다.

II. 조선고서 간행단체의 설립

1. 조선고서간행회의 설립과 운영

조선고서간행회는 사쿠오 슌조(釋尾春苒)가 1908년에 설립했다. 그는 오카야마(岡山) 출신으로, 도요(東洋)대학을 졸업했다. 1900년 내한 이후, 부산 개성학교, 대구 일어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京城民團 제1과장으로 京城第一高女, 경성중학교 설립에 참여했다. 1907년 조선잡지사를 경영하여 잡지 『朝鮮』⁵⁾을 발행했다. 이듬해 조선잡지사 안에 고서 간행을 위해 '조선진서간행

4) 최혜주, 幣原坦의 고문활동과 한국사연구, 『국사관논총』 79, 국사편찬위원회, 1998; 『靑柳綱太郎의 내한활동과 식민통치론』, 『국사관논총』 94, 국사편찬위원회, 2000;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한말 일제하 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일제강점기 아오야기의 조선사 연구와 '내선일가'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일본 동양협회의 식민활동과 조선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잡지〈조선〉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4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5) 1908년부터 1911년까지 발행하고, 이후 『朝鮮及滿洲』로 제호를 바꿈.

부를 두고, 조선의 역사, 제도, 지리, 문학 등에 관한 진서·奇籍을 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간행사업의 목적은 조선 통치를 위해 조선의 고문명을 조사하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⁶⁾ 나아가 조선고서간행회를 발기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선의 과거와 조선의 고문명을 말하면서 상세한 것이 거의 없다. 실로 동양사 연구의 일대 결점이다. 이것은 하나는 우리 학자 독서자가 支那 인도를 알고 조선을 안중에 두지 않는데서 연유한다. 그러나 조선의 고서가 세상에 많이 유포되지 않아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면 일부 책이 백금을 요하는 것이 금일의 사정이라고 하겠다. 지금 조선은 우리의 통치아래 귀속되어 이 땅의 경영을 위해 관민이 모두 급하다. 조선 연구는 어찌 학자의 일이라고만 말하겠느냐. 이것은 본사가 조선고서간행회를 발기해서 그 사업에 힘을 쏟는 이유이다.⁷⁾

그리고 「조선고서간행회 규칙」의 제10조에 간행물의 신청 취급소는 경성의 日韓書房, 경성일보사, 대한서림과 동경의 同文館, 오사카의 吉岡寶文館에 둔다고 발표했다.⁸⁾ 경성만이 아니라 본국의 동경과 오사카 지역에서도 고서 신청을 받았다. 이 간행회는 총 28종 83책의 고전을 『朝鮮群書大系』로 간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조선고서간행회의 임원은 명예贊成員과 특별찬성원, 그리고 평의원으로 구성되어 통감부·총독부의 고위관리가 망라되었다.⁹⁾ 1911년에는 명예찬성

6) 「本社の朝鮮珍書刊行計劃」, 『朝鮮』 3-6, 1909.8, 88면.

7) 광고 「本社の朝鮮古書刊行」, 『朝鮮』 4-2, 1909.10.1, 388~389면.

8) 『朝鮮』 4-1, 1909.9, 472면.

9) 제1기(1909~10)·명예찬성원:曾禰荒助(통감), 大久保春野(한국주차군사령관육군대장), 宇佐川一正(동척 총재), 김윤식(중추원의장), 박제순(중추원고문), 조중용(고문)·특별찬성원:石塚英藏(통감부총무장관), 岡喜七郎(내부차관), 若林寶藏(경시총감), 依孫一(학부차관), 倉富勇三郎(법부차관), 松井茂(내부경무국장), 小宮三保松(궁내부차관), 荒井賢太郎(탁지부차관), 木内重四郎(농상공부차관), 유길준(한성부민회장)·평의원:井上雅二(궁내부서기관), 千葉昌胤(궁내부규장각측탁), 河合弘民(동양전문학교 경성분교간사), 大岡力(경성일보사장), 小田省吾(학무국편집과장), 黑崎美智雄(규장각도서과장),

원 중에 大久保春野가 山縣伊三郎(정무총감)으로, 김윤식이 이완용으로 바뀐다. 특별찬성원과 평의원도 교체된다. 연구회의 운영은 설립자와 평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의원의 구체적인 역할은 알 수 없고,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원 구성을 보면 소네(曾禰荒助) 통감·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을 비롯한 통감부와 총독부의 철저한 지원과 관계 속에 이 간행회가 움직여 간 것을 알 수 있다. 샤쿠오는 고서간행회의 일로 오카(大岡力, 경성일보사장)와 함께 통감 관저를 방문하여 고서간행의 경과를 설명하기도 했다.¹⁰⁾ 여기서도 간행사업이 통감의 지원 아래 통감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의 후기에 쓴 「朝鮮群書大系 第1期 刊行完了」(1911)에는 소네 통감과 데라우치 총독, 이왕가에서 많은 원조를 해주어 제1기 고서간행사업을 완료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글이 실려 있다.

특히 왕조실록을 비롯한 도서를 정리한 궁내부 규장각의 촉탁 千葉昌胤과, 『朝鮮語辭典』, 『朝鮮圖書解題』 등을 편찬한 取調局¹¹⁾의 河合弘民과 鹽川一太郎, 學務局의 小田省吾와 關屋貞三郎이 이 간행회의 평의원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다른 고서 간행단체와 달리 중추원에 소속되어 일제에 협력한 김윤식, 유길준, 이완용, 박제순, 조중응 등의 한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잡지 『朝鮮』에는 한일 양국의 고서예약 진행상황을 게재했다. 여기서 통감부 각 부서 통역관들의 신청이 적은 것을 지적하면서, “독지가들이 용돈을 절

前間恭作(통감부통역관), 國分象太郎(통감부서기관), 淺見倫太郎(고등법원판사), 鮎貝房之進(동양전문학교 경성분교강사), 菊池謙讓, 三宅長策(경성공소원부장), 嶺八郎(동척비서장)

제2기(1911~18)·특별찬성원:倉富勇三郎, 荒井賢太郎, 石塚英藏, 小宮三保松, 木內重四郎, 宇佐美勝夫(내무부장관), 俵孫一(토지조사국 부총제), 菊池武一(농상공부장관 심득)·평의원:國分象太郎, 關屋貞三郎(학무국장), 市原盛宏(조선은행총제), 三宅長策, 淺見倫太郎, 河合弘民, 小田省吾, 鮎貝房之進, 鹽川一太郎(취조국사무원)

10) 「曾禰統監を訪ふ」, 『朝鮮』 4-5, 1910.1, 63~64면.

11) 김태웅,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참서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 『규장각』 1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3, 102~103면.

약하고 妻君의 간섭을 막아 과감하게 신청할 것”을 부탁하고 이 책들이 ‘제한의 기념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서간행회는 경성일보의 인쇄부와 계약을 맺고 간행사업을 추진했다. 발행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인쇄부를 확장하는 의욕을 보였다.¹²⁾ 이어서 1909년 11월 30일까지 예약신청을 한 양국의 관청, 신문사, 학교, 귀족, 학자, 紳士 등의 명단을 수록했다.¹³⁾ 이렇게 간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써도 신청자가 몰리지 않자, 고서를 ‘귀중한 장사도구’로 비유하면서 그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고서간행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업은 용이하게 끝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말이 너무나 陳套하다. 너무나 노인의 寢事에 비슷하다. …… 읽지 않더라도 쓸데없는데 내는 돈이 있다면 열심히 모집에 응해야 한다. 조선의 선물을 매월 모아 둔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다. …… 이것은 선물용이 아니라 실로 자기 집의 실용품이다. 또 귀중한 장사도구이다.¹⁴⁾

결국 조선고서간행회는 더 이상 간행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유는 예약자가 감소하고 종이 값이 폭등한 것과 크게 지원을 해주던 총독부와 이왕가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책의 구입을 중지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 사정이 있었다. 이 간행사업은 일본의 침략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단체의 고전 간행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사료조사를 위주로 조선의 고전을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간행하고 『朝鮮古書目錄』(1911)을 간행한 점이다. 이 책은 꾸랑의 『朝鮮書籍解題』, 『文獻備考』, 『海東繹史』를 주로 하고, 총독부의 도서목록, 이왕가의 도서목록, 외국어학교 경성지부 발행의 『韓籍目錄』, 幣原坦·金澤庄三郎·淺見倫太郎·河合弘民·前間恭作 등의 도서목록을 참조하여 3천여 종의 서적을 수록했다. 이것은 총독부에서 추진하던 구관조사나 역사자료 수집 등과 별도로 총독부의 지

12) 『編輯だより』, 『朝鮮』 4-2, 1909.10, 72면.

13) 『本社の朝鮮古書刊行』, 『朝鮮』 4-3, 1909.11, 14~15면.

14) 『編輯だより』, 『朝鮮』 4-1, 1909.9.1, 86면.

원을 받아 고서간행회를 통해서도 철저한 자료 수집을 한 것이다. 그리고 고서를 회원들에게 배포할 때 『朝鮮古書目錄』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2. 조선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조선연구회는 1910년 10월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병합을 기념하여 설립한 조선연구 단체이다. 그는 연구회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듬해 간사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9월 19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아오야기는 사가(佐賀)현 출신으로,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1901년 大阪毎日新聞의 통신원으로 내한했다. 우편국장, 李王職 재무관을 지내고 궁내부에서 藏書를 정리하다가 병합과 동시에 사직했다. 아오야기는 장서각에서 '이조사'를 편찬하면서 조선의 고전과 자료를 많이 접했다.¹⁵⁾ 그 후 조선연구회를 기쿠치(菊池謙讓), 오무라(大村友之丞)와 함께 시작하고, 나중에 이이즈미(飯泉東洋)가 합류하여 사업을 지속했다.¹⁶⁾

이 연구회는 大和町 1丁目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제로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永樂町 1丁目과 黃金町 3丁目로 이전했다. 5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은 고서가 나올 때마다 2원을 내면 한 권씩 받았다. 3개월분을 미리 내면 5원 70전, 6개월분은 11원 10전으로 할인해 주었다. 그리고 일본인 십여 명과 조선인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외교원이 판매를 담당했다. 조선과 일본, 만주, 대만까지 회원이 있었다. 회원은 일본 내의 각 학교와 지방단체 도서관, 경시청, 신문사, 관공서와 만주지역은 대련, 여순, 안동 남만주 철도회사 등 학교, 관공서, 신문사에, 대만지역은 총독부와 학교, 관공서 등에 분포되어 있었다. 고서 56책을 총서로 간행했다.

조선연구회의 창설 목적과 부속사업인 출판에 관한 규정은 「조선연구회창설취지서」와 「本會의 副事業」(1910.10)에 나타나 있다.¹⁷⁾ 조선연구회는 처음

15) 최혜주, 일제강점기 아오야기의 조선사 연구와 '내선일가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94면.

16) 최혜주, 아오야기의 내한활동과 식민통치론, 『국사관논총』 94, 국사편찬위원회, 2000, 195~221면.

에 사업부진으로 1년 정도 간행을 중지하다가 1912년에 데라우치 총독과 李王職의 고미야(小宮三保松) 차관의 지원으로 재개했다. 데라우치는 조선에 대한 연구조사가 절대 필요한 이유는 “조선 경영을 만족스럽게 하고, 내선동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본인이 여기에 냉담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조선고서간행회와 조선연구회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데라우치는 아오야기에게 조선사 편찬을 권유하면서, “일청한 삼국관계의 정치사와 조선 고대문화사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는 것은 조선에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총독부에서도 머지않아 역사편찬의 사업을 기획하고 싶다.”고 하여, 식민정책의 근본은 조선인의 민족심리 정신생활에 대해 이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⁸⁾

조선연구회의 간사 오무라는 386명의 회원 모집상황을 밝히면서 고서간행사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옛 조선의 살아있는 자료를 발견하여, 그것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을 경영하는데 쓰기 위함이다. 이것을 학자의 고증본으로 하기에는 다소 이의가 있지만 일반에게 통독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나아가 영국이 인도를 경영하면서 많은 경비와 정력으로 조사 연구에 투자한 것처럼, 일본도 “조선의 풍속을 알고 민정을 알아 확실하게 효과를 올리기 위해 조선 국민의 역사에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 연구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¹⁹⁾

조선연구회의 평의원은 총독부, 학계, 언론계의 인사가 관여했다. 연구회의 구성원을 보면 1915년에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먼저 1기 평의원은 총독부의

17) 大村友之丞, 부록, 『朝鮮貴族列傳』, 조선총독부 인쇄국, 1910.

“조선의 인문을 연구하고 풍속 제도 구관 典例를 조사하여 施設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社交를 調理하고 사회의 개선을 기도하여 고상한 취미를 더하여 寬裕한 감흥을 부여하는 것은 금일에 있어 필연의 요구이다. 조선연구회는 이 요구를 향해 성실하게 공헌하기 위해 창설한 것이다. 따라서 유익한 조선의 書史를 간행해서 연구에 도움을 제공하고, 혹은 강연회를 개최하여 사물의 연구와 고결한 사교상의 기관으로 만들고, 혹은 저술 자선 敎學 風紀에 관해 선량한 계획을 세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동지들은 분발하여 입회 참가하기를 바랍.”

18) 青柳綱太郎, 武斷政治時代 제26편 寺內伯의內鮮人同化論, 『總督政治史論』, 267~268면.

19) 大村友之丞, 序, 『角干先生實記·看羊錄·東京雜記』, 1911.1, 1~2면.

本間久介, 前間恭作, 淵上貞助, 小田省吾, 福田幹次郎과 다음의 학교, 언론계 인사로 구성되었다. 즉 河合弘民, 鮎貝房之進, 廣田直三郎, 高橋亨, 菊池謙讓, 三宅長策, 大村友之丞이다.

2기 평의원은 학계 인사로는 萩野由之와 三上參次, 吉田東伍, 幣原坦, 高橋亨, 鮎貝房之進, 河合弘民, 上田駿一郎이다. 언론계는 吉野太左衛門, 萩谷籌夫, 南部重遠, 菊池謙讓, 山路愛山, 福本日南, 총독부는 本間久介, 前間恭作, 秋山雅之介, 小田省吾, 福田幹次郎, 井上雅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선의 역사·교육·문화 등에 관해 저술을 남기거나, 학교와 총독부에 근무하여 일선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연구회의 평의원 구성을 보면 1기는 조선에 주재하는 총독부의 실무자급과 학교 인사로 편성되었다. 이는 처음 연구회의 성립과 함께 연구를 이끌어 가는데 총독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기는 총독부 실무자급과 일본에 있는 동경제국대학과 와세다대학의 교수와 주요 언론인, 그리고 경성과 만주지역의 언론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이른바 식민사관의 이론가들이 총망라된 것은 식민주의의 확산을 의미했다.

3. 자유토구사의 설립과 운영

호소이는 1908년 10월 9일 내한하여 통감부의 체신관리국에 고용되었으나 “위험과괴의 사상을 지닌 자로” 해고당하고, 日韓電報通信社(조선통신사의 전신)와 朝鮮日日新聞社에 근무하다가 데라우치 통감에 의해 쫓겨났다.²⁰⁾ 그 후 흑룡회의 우치다(內田良平), 다케다(武田範之)와 함께 ‘일한합방운동’을 전개하여 병합이 조선 사람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조선인의 민족성이 열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조선의 역사를 비하시킨 인물이다.²¹⁾

호소이는 병합을 기념하여 1910년 조선연구회를 창설하고, 『現代漢城の風雲と名士』와 『朝鮮文化史論』(1911)을 간행하여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데

20) 細井肇, 「懷かしき京城」, 『大亞遊記』, 『通俗朝鮮文庫』 11, 1922, 231~232면.

21) 高崎宗司 저, 최혜주 역, 조선민족성악론, 『일본망언의 계보』, 도서출판 한울, 1996, 174~175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²²⁾ 그러나 이듬해 아오야기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경에 조선연구회 지부를 만들어 조선연구를 계속했다. 3·1 운동이 일어난 후 12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다시 조선을 방문하면서 동경에 조선회관을 건립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조선회관은 호소이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李垕과 梨本宮方子(李方子)의 결혼으로 '內鮮一家'가 된 것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재계의 불황으로 건립운동이 실패하자, 1920년 말 조선회관의 부대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던 자유토구사를 설립한다. 조선민족의 심성을 연구할 목적에서 자유토구사의 본사와 지사를 각각 동경과 경성에 두고 고서를 『통속조선문고』(12책)와 『선만총서』(11책)로 번역 출판했다.²³⁾ 지사는 경성의 古市町 19번지에 두고 本町 1丁目에 있는 大阪屋號書店에 판매점을 냈다.

자유토구사의 창립 목적은 「자유토구사 趣意書」에 의하면,

내선의 융합은 실로 이런 의미에서 方今の 급무이다. 그러나 지금 양자의 인심이 괴리되고 무너져 거의 극에 달했다. 3월 소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자면, 무이해, 중탕을 원하는 자에게 구운 고기를 주는 자는 누구인가. …… 우리들이 내선의 융합을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문화 연구로 소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로 이 탄식을 오래한다. 그러나 준비 없이 일을 서두른 과거 10년간을 돌아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한 가지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자유토구사를 창립하고 어찌 고사고서의 詮索을 가지고 일을 마쳤다고 하겠는가, 간절히 천하에 같은 걱정을 하는 인사의 도움을 바란다.

즉 자유토구사의 설립은 '내선융합'을 위한 조선 문화의 연구가 급무라는

22) 細井肇, 「懲愆錄の譯出に就て」(1921)에 따르면 “지금 하나의 흥미를 느끼는 것은 이러한 稗史(징비록, 필자)에도 현금의 조선 통치상 가장 유익한 참고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고서간행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인 이유를 알 수 있다.

23) 細井肇, 「朝鮮會館の創設」, 『統治策論』, 『鮮滿の經營』中, 113~119면.

인식에서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자유토구사는 아세아문명을 保衛 映發하여 널리 세계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먼저 이 특정 사명을 가진 내선인의 친화 輯睦을 기하고 협력 일치하여 문화의 축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 사업으로는 ① 연설회와 강연회의 개최, ② 내선인의 친화를 도모하는 교제기관의 설립, ③ 고사고서의 통속역 간행, ④ 시무에 관한 유익한 저서 출판을 기획했다.

이상과 같은 내선융합을 위한 필요 외에 호소이가 자유토구사를 설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3·1운동에 자극받은 것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그는 ‘3·1소요’가 일어난 원인의 하나는 내선인의 의사가 충분히 소통되지 못한 데서 찾았다. 그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풍속, 습관, 문물, 역사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인은 우리들의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 내지인은 이 사랑스러운 동생을 선도하고 교화해야할 형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있습니다.”²⁵⁾라고 말한다.

호소이는 당시 조선 문제에 냉담한 내지 일본인과 관리들에게 기가 막힌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통속조선문고』를 출판했을 때 회원이 겨우 200명이어서 경영곤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선만총서』를 간행하고 회원 수가 최고였을 때가 600명을 넘지 않았으며, 조선에 있는 내지인 관리만도 5만 명을 넘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관직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3월소요’가 일어난 원인은 다른 민족을 동화 포용할 어떤 준비나 소질도 갖지 않고 병합을 단행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총독부의 고관이며, 그대들은 자주 백인의 나라를 방문해서 백인의 무엇을 배우고 돌아오는가. 그것이 조선의 통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대들이 백인문화의 찌꺼기를 맛보고 우러러 예찬에 바쁠 때 그 시간의 비용을 적어도 백분의 일이라도 이것을 쪼개서, 먼저 동양 고래의 목민의 비결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총독부의 고관이 이미 그러한데, 하급관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조선에 왔을까.²⁶⁾

24) 細井肇, 『朝鮮文學傑作集』의卷頭に題す, 1924.9.15, 4~6면.

25) 細井肇, 『通俗朝鮮文庫の刊行』, 1921.6, 1~2면

26) 細井肇, 『朝鮮文學傑作集』의卷頭に題す, 1924.9.15, 11~13면.

라고 하여, 재조일본인 관리의 조선 문제에서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내선결합을 위해 고서 간행사업을 추진함을 밝혔다.

본 사업은 총독부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싼 것을 ‘그냥’이라고 말합니다. 본사 간행의 ‘통속조선문고’야말로 정말 그냥 실비로 모든 분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책방과 달리, 일선유희의 대정신을 한 순간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실현하고 싶다는 社内同人의 작은 충정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²⁷⁾

또한 자유토구사의 경영과 사업을 위해 1년분 12원을 일괄 납부한 자를 추천하는 찬조원 제도를 만들었다. 찬조원에게는 여러 특권을 부여하여 회원모집을 독려했다. 특히 총독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찬조원들에게는 책의 정가보다 싼 비용 즉 “그냥 실비”로 간행서를 배부했다. 1922년 7월 15일 현재 조사된 찬조원 명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회원 수는 조선과 만몽, 일본을 합해서 782명이다. 개인 회원은 조선인(77명)보다는 일본인이 589명으로 월등히 많다. 특히 기관의 경우를 보면, ①총독부의 부속기관: 체신국, 우편국, 군청, 도청, 조선식산은행, ②경찰서, ③공립보통학교, 지방문고, ④단체: 상암회의소, 동양협회, 동양척식회사, 동광회, 만철 출장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단체 가운데 동양협회는 1907년 조선과 대륙 경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식민 활동을 한 주요단체이다. 동양협회의 경성분교 안에는 샤쿠오가 경영하던 조선고서간행회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협회의 건의로 동양척식회사가 설립되었다.²⁸⁾ 同光會는 1922년 동경에서 대륙낭인들이 결성한 친일단체로,²⁹⁾ 우치다, 도야마가 중심인물이다. 이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호소이와 함께 병합운동을 추진한 인물이다. 회원 가운데 일본

27) 細井肇, 「通俗朝鮮文庫の刊行」, 1921.6, 1~2면.

28) 최혜주, 「일본 동양협회의 식민활동과 조선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105~111면.

29) 동선희, 「동광회의 조직과 성격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 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494~499면.

인의 경우는 본국보다 재조일본인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유토구사는 명예고문과 고문, 평의원, 常議員 그리고 社内同人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종의 회원제인 찬조원 제도로 운영되었다. 명예고문 미즈노(水野鍊太郎)는 정무총감으로 총독 다음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다. 총독의 대리인으로서 이 연구회를 지원했다. 고문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은 이노우에(井上角五郎)와 아다치(安達謙藏)다. 이노우에는 조선의 최초 신문 『한성순보』를 창간하는데 기여한 인물이다. 아다치는 한성신보 사장을 지내고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가담했다. 평의원에는 언론계 인물이 많이 들어있다. 경성일보, 조선신문, 경성신문 사장으로 이들은 어용언론인으로 식민 통치에 협력했다. 총독부 관련 인물로는 이마무라(今村靱), 마루야마(丸山鶴吉), 유게(弓削幸太郎)가 있다. 이마무라는 경찰로 병합에 공을 세우고 이왕직의 사무관을 지내면서 조선 풍속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조선통이다. 마루야마는 경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며 유게는 학무국에서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들었다. 아리가(有賀光豊)는 총독부 이재과장 등을 역임하고, 조선 재계의 영향력을 가진 식산은행의 두취로서 연구회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사람이다.

Ⅲ. 각 단체의 조선고서 간행물

1. 조선고서간행회의 조선고서 간행물

조선고서간행회는 총 28종 83책의 고전을 『朝鮮群書大系』로 간행했다. 간행물은 크게 시문집, 역사서, 견문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그런데 간행할 고서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만 간행회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은 없다. 다만 병합 이전이라는 시점에서 식민통치를 위해 폭넓게 준비했고, 다른 단체에 비해 간행권수도 많다. 즉 기본적으로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고서로 조선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 처음 시작하는 간행사업이었던 만큼 수집하기 용이한 자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

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만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첫째, 시문집은 조선왕조의 야사, 수필, 시집과 고려후기의 시문집이다. 『대동야승』은 조선왕조의 야사, 일화, 수필 등을 모은 야사의 일종이다. 당쟁과 관계가 깊은 사화, 옥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에 관한 기록이다. 샤쿠오는 조선고서 1책을 평균 1원으로 계산하면서 그 가운데 『대동야승』은 몇 백금을 주고도 용이하게 손에 넣을 수 없다고 평가한다.³⁰⁾ 시문집 가운데 『과한집』은 시학연구의 중요 자료이며, 서거정의 『동인시화』는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퇴계집』은 성리학 연구에 도움이 되며, 『삼봉집』은 조선 건국이념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역사서는 『삼국사기』, 『동국통감』, 『동사강목』이 사학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실학자 유득공의 『발해고』, 『사군지』와 한치윤의 『해동역사』, 이중환의 『택리지』, 이궁익의 『연려실기술』이 있다. 그리고 여러 책이 지방지로 간행되었다.

셋째, 견문기로는 고려 중기 송나라에서 온 서공이 지은 『고려도경』이 있다. 이 책은 1932년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선학총서로 다시 간행할 정도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고려사 관계의 귀중한 기사를 많이 수록했다. 그리고 『해행총재』는 고려, 조선시대 통신사나 포로 및 표류 등으로 일본을 왕래한 자들의 기행록을 모은 책이다.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조선인의 일본관, 일본의 문물제도, 일본인들이 조선을 보는 시각을 살필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가재연행록』은 김창업이 1712년 연행정사 김창집을 따라 북경에 다녀오면서 견문한 바를 기록한 연행록이다. 역대 연행록 가운데 가장 좋은 책으로 꼽힌다.

넷째, 『경도잡지』는 유득공이 지은 세시풍속지다. 『열양세시기』나 『동국세시기』보다 먼저 집필된 것이다. 우리나라 민속학 연구에 귀중한 문헌이다.

30) 「주장」, 『朝鮮』 4-5, 1911.11.1, 14면. 그는 이런 진서를 간행함으로써 “우리는 조선 연구자의 매개자가 되고 조선 문헌의 보호자가 되었다. 동양고문명상에 다소의 공헌이 있는 것을 스스로 기뻐하는 바이다. 조선에 있으면서 조선의 과거를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선을 병합하여 조선을 연구하는 것을 모른다. 그 문헌과 고문명의 보호를 생각하지 않는 무리는 우리와 더불어 할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1911년 조선광문회에서 『동국세시기』를 간행할 때 『열양세시기』와 함께 펴냈다. 『아언각비』는 1819년 정약용이 지은 책이다. 이 책은 언어, 문자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던 말과 글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골라 그 뜻과 어원을 밝혔다. 『문헌촬요』는 1851년 정원용이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를 모아 편찬한 類書다. 조선말기의 문물제도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가 된다. 『대전회통』은 1865년의 『대전통편』 이후 80년간의 受教, 각종 조례 등을 보충하여,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이다. 이 책은 1938년 총독부에서 양장으로 간행했다. 『성호사설유선』은 실학자 안정복이 이익의 『성호사설』을 분야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골라 정리한 책이다. 『지봉유설』은 실학자 이수광이 백과사전식으로 편찬한 자료집이다.

또한 문화재와 만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朝鮮美術大觀』(1910)과 『欽定滿洲源流考』(1916), 『新朝鮮及新滿洲』(1913) 등을 총서로 펴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기에 많은 문화재가 약탈되거나,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조선을 중시하고 만주침략을 감행한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책들이 자료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¹⁾

2. 조선연구회의 조선고서 간행물

조선연구회에서 간행한 56책의 고서 가운데 중요한 것을 분석해서 연구회가 어떠한 목적에서 고서를 간행하였는지 검토해보자. 첫째,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고전을 간행했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通鑑』, 『麗史提綱』, 『國朝寶鑑』, 『增補文獻備考』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실학서인 『牧民心書』, 『經世遺表』, 『山林經濟』, 『燕岩外集』, 『芝峰類說』이 있다. 이 책들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실학서의 경우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가렴주구에 시달렸는지를 강조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조선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번역 간행되었다.

둘째, 임진왜란 관련 저서를 간행한 점이다. 도요토미의 조선침략에 대해서는 『豊太閤征韓戰記(징비록)』, 『李舜臣全集』, 『慕夏堂集』에서 중요시하고

31) 『朝鮮研究の聲』, 『朝鮮』 4-1, 1909.9, 8~9면.

있다. 이 가운데 그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慕夏堂集』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부하 장수 沙也可(귀화명: 金忠善)가 병사 3천 명을 데리고 투항하여 의병을 모집하고, 일본군에 대항한 공으로 정2품의 관직을 받고 조선에 귀화한 사실을 기록한 문집이다. 조선연구회에서는 여기에 사론을 붙여 이 문집이 날조된 것임을 고증했다. 그 고증의 하나로 아사미(淺見倫太郎)는 “慕夏堂이라는 雅號는 조선인이 모하관을 건립한 뒤에 『小華外史』가 유행했던 사상에 감염된 것이며, 송시열 무리의 사상에 감염된 자가 김씨 성을 소설적으로 날조해서 출판한 것”으로 보았다.³²⁾ 아오야기는 『慕夏堂集』은 조선의 문인이 피폐되고 위축된 인심을 고무 진작시키기 위해 날조한 것임을 논했다. 그러면서 이런 날조로도 “일본의 기세가 조선을 병합시킨 것은 막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³³⁾

그리고 임진왜란도 도요토미가 이유 없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치룬 팽창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류 구원을 위해 나타난 부처와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 이렇게 도요토미의 활약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대륙팽창의 꿈을 가지도록 선동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대외침략에 시달려온 역사와 사대적인 조선을 강조한다. 전자의 경우 『朝鮮外寇史』는 고대 이래 조선이 중국과 북방족, 일본에게 침략당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아오야기가 문종 때 편찬된 『東國兵鑑』에 도요토미와 淸太宗의 침략을 보충하여 저술했다. 여기에서는 조선이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고 외침에 시달려온 역사를 강조하는 식민사관의 한 전형을 보게 된다. 아오야기는 서문에서 조선왕조에 이르러 “武人은 목숨을 아까워하게 되고 문인은 돈을 사랑하여, 상하 모두가 음란한 풍속으로 게으르고 나약해져 불면

32) 『慕夏堂集』, 『慕夏堂史論』, 1915, 7~9면. “모하당집은 (중략) 海島의 蠻邦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일감정을 흥분시키려고 계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용렬한 僞作을 만든 저자의 공으로 조선의 인심을 흥분시키고 존대하게 했지만 실질로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지난 날 蠻邦이라고 불리던 일본은 旭日沖天의 기세로 동서의 문명을 흡수하여 支那의 中華, 조선의 小華도 이제는 극동의 大華(일본, 필자)로 찬연하다. 소화가 대화에 병합되어 귀화 투항하는 것은 形勢의 당연한 바이다.”

33) 『慕夏堂集』, 74면.

날아갈 것 같은 무인 유생의 세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³⁴⁾ 후자는 『小華外史』를 간행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술 의도는 조선이 청군에게 항복한 것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소중화국인 조선과 명과의 사대관계를 밝힌 것이다. 明史를 위주로 기록하고 조선의 사실은 소략하게 하여, 명나라에 대한 보은의 뜻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元朝秘史』는 몽골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는 일본의 몽골에 대한 관심에서 간행했다. 일본은 극동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만주와 몽골 지역까지를 국책의 하나로 지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넷째, 조선 민족의 동화를 위한 서적간행이다. 『朝鮮野談集』의 서문에서는 ‘반도’ 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해 그 사회의 이면과 국민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책을 “한번 읽으면 淸閑의 흥을 덧붙이고, 두 번 읽으면 日鮮의 비교 문학상의 자료가 되며, 세 번 읽으면 위정자와 경세가의 참고가 된다.”고 하여, 조선민족의 국민성과 풍속 습관을 대담하게 폭로했다. 이러한 내용은 신유한이 쓴 일본관찰기 『海遊錄』의 번역 서문에도 나타난다. 즉 “신유한이 일본의 풍속 습관을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발표하여 일본을 경시하고 야만의 풍속으로 보았다.”고 지적하면서, 연구회에서 이 책을 간행하는 이유는 조선인이 얼마나 과대망상에 빠져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³⁵⁾ 그리고 당쟁관계 저술로 소론의 입장에서 서술한 『靑野漫集』, 단종의 피탈을 비판한 『莊陵志』, 인현왕후의 폐출을 기록한 『謝氏南征記』를 통해 조선왕조의 당파성을 부각시켰다.³⁶⁾

3. 자유토구사의 조선고서 간행물

자유토구사는 『通俗朝鮮文庫』(1921.3~1922.5, 12책)를 간행하는 목적을 “1천7백만의 동생을 어떻게 다룰지 수수께끼를 풀기위해서”라고 말한다.³⁷⁾

34) 「朝鮮外寇史に叙す」, 1915, 1~2면.

35) 靑柳綱太郎, 『海遊錄に叙す』, 1915, 1~3면.

36) 靑柳綱太郎, 『謝氏南征記に叙す』, 1914, 1~4면.

37) 細井肇, 『通俗朝鮮文庫の刊行』, 1921.6, 1~2면, “금일 조선 문제의 시야를 장백산 남쪽

그리고 1년을 1기로 하여 조선 상고 이래의 정사, 야사, 소설, 시가류를 『통속 조선문고』라는 제목으로 간행하는 것은 이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간행 원칙으로는 고서의 대강과 내용을 언문일치로 알기 쉽게 풀어, 부인이나 아이들도 읽고 알 수 있도록 번역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鮮滿叢書』(1922.7~1923.7, 11책)가 간행되었다(〈표 1〉 참조).

자유토구사에서 간행한 고서의 특징은 소설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兩亂관계 서적이 있고, 호소이의 견문기 『대아유기』와 기쿠치의 『각종의 조선평론』, 『조선문제 강연집』, 『조선의 교육』 등이 있다. 후자는 고서라기보다는 조선 문제에 관한 각종 평론으로 자유토구사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해준다.

첫째, 소설 등 작품에 나타난 조선인의 민족성 문제. 호소이가 기본적으로 조선고서 간행을 생각하면서 착안한 것은 ‘가족주의의 결함과 게으른 조선인의 생활상’이다. 즉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는 타인에 의지해 살려는 사상이 골수에까지 스며든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제비의 다리』(홍부전)에서 “동생이 형의 집에 기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쓴 것은 가족제도의 결함에 의한다. 궁하면 반드시 다른 데서 물건을 빌려오려는 依惠主義, 이 사상은 흥부와 흥부의 처, 그의 자식에게도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³⁸⁾

에 한정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선 문제는 바로 美, 支, 露의 삼국에 관계되는 세계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둘러싼 앞에 서서 세계적 시련에 응하려는 일본 및 일본인이 반도 新附의 1천 7백만의 동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일본의 국운을 좌우할만한 중대한 ‘수수께끼’가 아니겠습니까. 자유토구사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위해 작은 우월한 방법이기도 해도, 장구한 國壽로부터 생각하면, 자못 심대한 의의를 가진 가장 긴요한 기획을 하나의 부대사업으로 하여, 강호제현의 앞에 발표하는 것은 사내동인의 무한한 기쁨입니다.”

38) 細井肇, 『鮮滿叢書 第1卷の卷頭に』, 1922.5.21, 11~12면, “스스로 노력하고 구하려는 의지는 최초부터 발동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餓死의 마지막까지 타인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려는, 이른바 恩에 의지한다는 사상이 골수까지 스며들고 있다. 없어야 할 비천한 생각이 아닌가. 이 인격이 國格으로 드러날 때, 인접한 대국 강국에 대한 사대의교가 되고 속이고 계락을 꾸미는 面從腹非가 되는 것이다. 논하면 끝이 없지만 이 구상과 필치가 과대하고 거친 童話의 小篇 가운데에도 보이는 것처럼 조선의 민족성이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붓을 그만둔다.”

호소이는 『장화홍련전』을 읽고 떠오르는 것으로 조선인의 효심, 미신, 집요함, 복수심, 공리적 관념의 발달을 들었다. 그는 조선에서 ‘간악무도한 계모와 애절 비참한 繼兒의 가정 내에서의 파란’이 환영받는 근본적 원인을 민족 심성의 문제로 돌린다.³⁹⁾ 또한 『파수록』은 고사 고서라기보다는 민정 里俗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본다. 그는 조선인의 생활 속속들이 파헤쳐봐야 그 민족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⁴⁰⁾ 그리고 “아담 중에 현저한 ‘정조’관념은 상당히 흥미가 있지만 절대적인 순결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호소이는 『목민심서』를 읽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① 상민의 순종에 경복한다. 조선 상민의 노예적 굴욕 생활을 불쌍히 여기고, 악정의 결과가 민족정신을 상처내고 있다. ② 이조의 정치가 극단적인 부패에 빠졌다. 관리의 심술은 심각하고, 집요하고, 음험하고, 망령되며, 교활하고 특히 거짓말을 잘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다반사다. ③ 형식적 위용과 석고로 만든 형상 같은 예의가 고조되고 있는 유교의 폐해라고 지적한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이미 조선은 멸망해서 해골이 벌거숭이산에 누워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⁴¹⁾

『아언각비』에 대해서는 유학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한갓 지엽말단의 형식과 의례에 구애되었다고 비판한다. 즉 호소이는 이 번역을 통해 ‘모방문명의 비애를 느꼈다’고 주장한다.⁴²⁾ 그는 정약용에 대해서도 “중화문명의 심취

39) 細井肇, 「薔花紅蓮傳を閲して」, 1922.3.2, 61~81면.

40) 細井肇, 「はしがき」, 1923.5.20, 1~3면, “파수록을 검토한 정도로는 아직 膚鬚을 문지른 정도이고 표피 한 장의 관찰이다.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조선인의 실생활의 속을 투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편, 코카인, 모르핀을 즐겨 피우는 자가 많은 조선인의 일상에서는 음식에도 生殖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다.”

41) 細井肇, 「牧民心書の譯述について」, 1921.2, 1~7면.

42) 細井肇, 「雅言覺非を譯して」, 1922.4, 119~127면, “본서도 역시 중화의 문명에 대해 반도 東人の 문명이 얼마나 열약한가를 분명히 지적한 점에서, 모방문명의 질과 양의 무가치 무의의가 읽는 우리에게 아플 정도로 심각한 느낌을 준다. 무의의 무가치의 모방문명—이것은 불행히 정약용이 업신여기고 비웃은 用字의 잘못, 언어의 잘못에 문제를 국한하지 않았다. 독창발명의 적극적 생명을 갖지 못하는 문명, 다만 모방하기 위한 모방에 중시한 문명, 이러한 소극적 死滅문명의 공기를 호흡하고 성장한 민족의 肺腑에 과연 청신 발달한 기백이 넘치겠는가. 강대한 자가 한번 쩡그리고 한번 웃는 데 약한 민족에게

자로 모방심리의 대표적 인물이며 사대사상을 빼와 살, 피로 삼는 충실한 학자로서 최고의 정점에 설 자격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혹평한다.

둘째, 양난관계 서적에 나타난 사대성 문제. 먼저 『징비록』에 대해서는 국정의 책임을 맡은 유성룡이 전쟁을 피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일본의 국정을 탐색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물었다. “일본을 倭奴, 도요토미를 關僞라고 부르는 배짱으로 일본과의 수교를 싫어했다.”고 지적한다. 이것 때문에 도요토미가 화가 난 것은 당연하고 조선의 실력을 알고 공격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가노(長野直彦)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조선이 ‘지나의 속국’으로 안주하여 “일본에 천황이 있어 국토나 인민에 대해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징비록』이 현재의 조선을 통치하는 데, 가장 유익한 참고자료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⁴³⁾ 여기서는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이 결국 조선의 잘못된 정세파악과 책임자의 무능, 사대주의에 기인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볼 수 있다. 『징비록』은 1936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저자 자필의 필사본을 영인하여 『초본 징비록』이란 제목으로 간행했다.

『병자일기』는 병자호란 45일간의 기록이다. 역자 시미즈(清水鍵吉)는 병자난을 ‘조선 개벽 이래의 國辱’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일기를 해부하면, 조선 4천 년의 민족성이 손에 잡힐 듯이 전개되며, 장래의 조선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자유토구사가 번역을 하는 의의를 강조했다. 여기에서도 조선의 군신상하가 ‘사대국에 의지하고 도망을 가버린’ 수습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⁴⁴⁾

셋째, 일본견문기에 나타난 조선인의 일본관. 호소이는 일본에 파견된 사신

‘혼’이 존재했을 것인가.”

43) 長野直彦, 「懲愆錄の譯出に就いて」, 1921.4. 1~5면.

44) 清水鍵吉, 丙子日記の譯述に就て, 1921.7. 6~8면. “전란의 외중에 있었다고 해도 종사의 존망에는 어떠한 배려가 없었다. 만사는 사대국에게 의지하고 스스로 도망가서 있으면 끝난 것이다. 그런데 병자의 난은 평소 부모로 의지해 오던 사대국의 혁명군이 공격해 온 것이다. …… 조선은 지금 살얼음을 걷는 생각으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위로 국왕으로부터 아래로 천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종사를 단단하게 둘 것인가에 전 지력, 전 능력, 전 용력, 전 담력을 기울여야 할 대국난, 대시국을 만난 것이다.”

의 기행문으로 『해유록』만큼 문자와 시상에 풍부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 신유한은 “다만 산천을 우러르고 풍물을 관광하여 도읍을 차례로 지나쳐서 인물과 접촉했을 뿐, 일본을 大觀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⁴⁵⁾ 그는 이 책에 대해 시기심이 매우 깊은 심성이 여행기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평하고 현대의 조선인에게도 있는 습관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에도의 문사를 무시하고 倭俗을 경모 냉소하는 것은 외국에 사신으로 간 자로서는 식견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자유토구사의 속셈은 이 책을 통해 ‘조선의 문약과 일본의 무장’을 대비시키고, ‘조선의 야만과 일본의 문명’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데 있었다.⁴⁶⁾

넷째, 당쟁관련 저술에 나타난 당파성 문제. 『장릉지』는 단종의 왕위피탈 후에 전개된 상황을 기록한 책이다.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강원도 영월로 추방되어 죽은 사실과 숙종 때 복권된 뒤의 여러 문제를 다루었다. 호소이는 자신이 고서에 친근감을 갖게 된 것이 이 책 때문이며 고서를 읽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 다음 『동문선』을 읽고, 『삼국유사』, 『고려사』, 『국조인물지』, 『동국문헌비고』, 『여지승람』 등을 읽고 고서에 흥미를 느껴, 그 후 정사와 야사를 난독했다고 독서력을 밝혔다. 그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독자에게 흥미가 없는 부분인 분묘, 사묘, 제축, 제기, 봉릉, 건사 등을 빼고, 이 책의 골

45) “이미 일본을 대관하는 것을 하지 않은 안목으로는 조선의 대일정책과 같이, 혹은 大亞에 있는 각 민족의 소장성쇠와 같이, 본래부터 그 당구의 오목렌즈에도 볼록렌즈에도 비칠 리가 없었다. 그는 이 의미에서 단순한 기행문을 초하는데 절묘한 수완을 가지고 기록한 문사에 그친다. 현대라면 박문관의 여행기 편찬주임 정도일 것이다.”

46) 細井肇, 「海游録を譯して」, 1922.7.8. 1~5면, “그들도 일본인의 결벽에는 꽤 감심한 것 같다. 이것이 地味, 기온 관계 이외, 정치, 사회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금일의 조선인은 왜 내지인은 저 파리를 싫어하거나, 호질을 두려워하거나, 흥역을 시끄럽게 말하는지, 거꾸로 내지인의 성급을 웃고 있다. 혹은 의사의 말에 따르면 조선인의 배설물에는 백인 중 3인까지 수 시간 지나면 날라 가는 파리의 알이 성하게 일어난다. 몇 십 배의 알홀에 5시간 담가두어도 죽지 않았다고 한다. 선인의 배 속은 파리의 양조소이다. 이것은 밥 위에 파리가 알을 낳고 가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기 때문에 위장은 파리의 부화작용을 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아메바 이질, 페디프스가 많은 것은 하수를 그대로 음료수용으로 하여 균을 몸속에 섭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불초가 지나에서 얻은 풍토병도 이런 종류일 것이다.”

자인 세조찬탈 사실과 그로 인해 생긴 사육신의 변, 무오사화를 중심으로 해설한다고 말했다. 사육신은 “불쾌하고 陰暗한 반도의 사실 중에 한 점의 螢火같은 존재였다.”고 평하는 반면, 무오사화에 대해서는 “동서노소 봉당사화의 발단이 되는 추악한 반면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⁴⁷⁾

『봉당사화의 검토』는 호소이가 사회와 당쟁의 역사를 간단하게 서술한 것이다. 그는 이 책을 쓴 목적은 조선인의 심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봉당사화는 단순한 정권쟁탈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인식했다.⁴⁸⁾ 그는 정권쟁탈에는 부모나 조부의 당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익이 있었다고 보았다. 당쟁의 기원을 조선 전기의 사회로까지 확대시키고 대원군시기까지 망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책이 간행된 이듬해 총독부는 조선사편수회를 조직해서 『조선사』 편찬을 기획했다. 이 책은 이후에 나오는 식민사관 저술에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되었다.

다섯째, 당시의 조선 통치문제에 대한 관심사. 『大亞遊記』, 『조선의 교육』, 『조선문제강연집』, 『각종의 조선평론』 등이다. 먼저 『대아유기』는 호소이가 3개월간 대만, 홍콩, 중국, 만주를 거쳐, 경성을 다녀온 기행기이다. 그는 “일본은 동양의 강국으로 아세아의 맹주다. 동양문명을 보합 영발해서 세계의 문화에 공헌할 중대한 책무를 갖는다.”고 하여 극동에서의 일본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강조했다.⁴⁹⁾

『조선의 교육』은 10년 간 총독부 학무과장을 지내고 조선 교육의 기초를 만든 유게(弓削幸太郎)가 1923년에 지은 책이다. 그는 조선인의 특질로 종순, 태평, 문약을 들어, 사대주의와 독립심 부족 그리고 형식주의를 지적한다. 이러한 단점을 교정할 교육 방법을 정해야 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47) 細井肇, 「莊陵誌の譯述について」, 1921.2. 1~2면.

48) 細井肇, 「序」, 1921.4. 1~3면. “조선에서는 정권은 바로 생활이었고, 정권을 얻지 못하면 생활은 확보되지 않았다. 失權은 餓死이다. 아사의 앞에는 이치도 잘못도 없고, 의리도 인정도 없으며,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다. 몰러나 아사당하는 것보다는 나아가 敵黨과 싸우고, 싸워서 정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단체적으로 당파를 조직하고, 균중심리에 통유하는 책임회피를 자기 최면으로 관념상에만 구하고 극단까지 당쟁을 계속했다.”

49) 細井肇, 「日支共存の大義」, 1919.8.23. 40~41면.

조선의 발달은 기대하기 어렵고, 병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⁵⁰⁾

『조선문제강연집』은 자유토구사가 1922년 9월 22일 요미우리신문사의 후원으로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강연회 기록이다. 호소이의 '내선인의 심성 較覈', 와세다 대학교수 우치가사키(内ヶ崎作三郎)의 '반도문화', 중의원 나가이(永井柳太郎)와 시마다(島田三郎)의 '세계의 식민정책' 등에 대한 강연을 모은 것이다.

『각종의 조선평론』은 기쿠치가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각종 논평을 쓴 글이다. 주요 내용은 '조선론', '내선융화', '민족운동', '내지연장주의', '문화정책과 내정독립' 등에 관해서이다. 일제는 3·1운동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여 식민통치 방침을 무단에서 문화정치로 바꾸었는데, 사이토 총독의 지원을 받고 있던 자유토구사가 식민통치에 도움이 되는 이 자료집을 간행한 것이다.

IV.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의 성격

지금까지 재조일본인들이 조선을 연구하고 고서를 간행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그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간행한 고서의 종류와 회원 모집과 배포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세 단체의 고전 간행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조선고서간행회, 조선연구회, 자유토구사를 설립한 세 사람은 모두 언론인으로, 각각 조선연구와 조선 경영의 큰 꿈을 갖고 조선에 건너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1900년대 초반 일본에서 교사나 신문사의 통신원으로 내한하여 식민 교육의 기초를 다지거나, 국내사정을 탐색하고 조사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했다. 이들이 조사 연구한 내용은 조선의 문학, 역사, 정치, 사회, 지리, 교육, 실업 등의 분야와 만주 등을 총망라했다.

50) 弓削幸太郎, 제8장 결론, 『조선의 교육』, 자유토구사, 1923, 306~307면.

고서간행사업을 시작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대한 지식과 자료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고서간행사업을 생각하게 된 이유의 하나는 임진년 도요토미의 침략으로 조선의 전적이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본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남아 있는 고서가 있다고 해도 희귀하고 값이 너무 비싸서 구해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⁵¹⁾

세 단체의 고서간행사업에서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1908년 설립된 조선고서간행회는 통감정치 아래 병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따라서 조선사회의 모든 사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사학, 문학, 정치학, 사회학, 의학, 자연과학, 종교적 측면 등의 각 방면에서 종합해서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본래부터 일조일석의 사업이 아니다.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상당한 경험과 기본 지식도 필요하다. 연구의 태도는 신중하고 냉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²⁾고 하여, 당면한 급무는 조선인의 국민성 연구라고 말한다.

다른 두 단체에 비해서 조선고서간행회의 사업은 고서의 원문 그대로 간행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간행자의 고서에 대한 편견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서간행사업을 통해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도리어 식민통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 주장도 있었으나 이를 일축한다.⁵³⁾ 또 하나의 특징은 만주 문제를 중시하여 만주 관련 고서도 간행

51) 佐藤寛(義親王宮 고문), 韓國圖書館設立の議(상), 『朝鮮』 1~4, 1908.6.1, 18~21면. “조선본의 가격, 날로 달로 비싸져, 『고려사』가 5백 원, 『문헌비고』가 3백 원이 되었다. 이것은 호사가 외국인인 백방으로 손을 써서 매수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해도, 그 대원인은 文祿의 큰 변란에 의한 것이고, 도서가 거의 없어진데 있다. 지금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했다면 정치, 법률, 문학, 기예 등 일체의 사료가 될 만한 것은 물론, 新古의 도서, 역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52) 成田生, 『間窓漫語』, 『朝鮮』 3-1, 1909.3.1, 59면.

53) ‘주장’, 『朝鮮』 4-4, 1911.10.1, 8면. “새로운 조선을 세우는데 급해서, 옛 조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하이칼라 같은 사람과, 조선의 고기록 고문서를 전하는 것은 조선인에게 옛날을 회고하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몰이해는 지금의 세상에 진시황을 배우고자 하는 자이다. 우리는 이런 무리와 더불어 말할 정도의 아량과 시간을 갖지 못했다.”

했다. “만주경영에 급한 일본으로서서는 만주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학구적인 한가로운 일이 아님을 믿는다.”고 주장했다.⁵⁴⁾ 이 연구회는 고서간행사업이 끝난 뒤인 1916년부터 1년 동안 조선과 만주의 지리 역사 및 인문산업 등에 관한 전문서적을 『朝鮮及滿洲叢書』로 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⁵⁵⁾ 또한 『日本化された朝鮮及滿洲』(1912), 『朝鮮及滿洲之研究』(1914) 등을 간행했다.

둘째, 조선연구회의 고서간행은 원문과 번역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 연구회에서 간행한 기본적인 고전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조선 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간행한 것도 많았다. 즉 관리의 가림주구에 고통을 받아 온 백성, 외세 침략에 시달린 역사, 큰 나라를 섬겨 온 사대적인 조선, 당쟁을 일삼아 온 정부,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열등감에 젖어 독립할 수 없는 사대주의가 조선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망국에 직면하게 된 요인을 부패한 왕조와 민족성 탓으로 돌려 조선 지배를 향한 일본의 침략의도를 숨겼다. 이것은 결국 일본이 이러한 조선에 ‘선정’을 베풀기 위해 식민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합리화를 유도한다.

한편 일본인들의 고서간행 가운데 주요한 주제로 다루는 것은 도요토미와 관련한 자료의 간행이다. 도요토미의 침략과 전쟁도 합리화시키고, 그의 활약을 강조하여 대륙팽창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했다. 조선연구회에서 조선고서를 일본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널리 읽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획한 것이다. 특히 조선연구회가 1910년 병합을 기념하여 설립되고 그 부대사업의 하나로 조선고서를 간행했기 때문에 이 연구회의 간행사업 의도는 분명하다. 식민통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의 조선

54) 「滿洲源流考の發行」, 『朝鮮及滿洲』 108, 1916.7, 5면.

55) 처음 간행할 예정이었던 책은 다음과 같다. 『朝鮮地誌』(상·하), 『滿洲及蒙古の地誌』, 『朝鮮歷史』(상·하), 『滿洲及蒙古の歷史』, 『朝鮮の諸法規』, 『滿洲の諸法規』, 『朝鮮の産業』, 『滿洲及蒙古の産業』, 『山東省一斑』, 『支那の現勢』. 그러나 이듬해에 발표된 간행예정서목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으나, 전부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朝鮮の宗教美術文藝學術人物』, 『朝鮮及滿蒙の衛生教育交通』, 『朝鮮及滿蒙の經濟財政』, 『朝鮮及滿蒙の現勢』.

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셋째, 자유토구사는 고서를 전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자유토구사는 3·1운동이 일어난 데 자극받아 설립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조선의 민족성 연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내선융합을 강조했다.

자유토구사는 앞서 간행된 조선고서간행회의 고서가 값이 비싸다는 것과 조선연구회의 고서는 직역으로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토구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언문일치로 번역하여 쉽게 널리 많이 읽히기 위한 간행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단체의 고서간행은 약간씩 성격을 달리한다. <표 1>과 같이 간행 서목도 다양하다. 조선광문회의 간행도 포함시켜 비교해 보면 네 단체가 모두 간행한 고서는 한 권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서로를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겹치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네 단체 가운데 세 단체에서 모두 간행한 고서는 『삼국사기』, 『동국통감』, 『팔역지』, 『징비록』에 불과했다.

조선고서간행회는 소네 통감의 원조 아래 조선통치를 위한 사전조사의 성격을 갖고 한국인도 참여시켜, 연구회에서 경영하는 잡지 『朝鮮』에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간행 사업을 확산시켜 나갔다. 조선연구회는 데라우치 총독의 원조로 간행사업을 추진하고 식민통치에 협조해 갔고, 자유토구사는 사이토 총독의 절대적 신임 하에 자금 지원을 받아 간행사업을 지속시켜 나갔다. 이 책들이 편찬된 목적은 식민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원료 공급지가 된 조선에 이민하려는 일본인이나 사업을 경영하려는 일본인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겸했다. 결국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필요했던 간행사업은 소네 통감, 데라우치 총독, 사이토 총독의 전폭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 추진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였다.⁵⁶⁾

56) 「성공담」, 『朝鮮』 4-2, 1909.10.1, 63~64면. 개인이 고서를 간행한 경우는 1906년 통감부 통역관을 지낸 후치가미 데이스케(淵上貞助)가 경성거류민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동국여지승람』을 간행했다. 한국정부 학정 참여관 시데하라 타이라의 서문을 받았다. 이 책은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단체에 임원으로 간여한 일본인들은 통감부나 총독부의 관리, 본국의 정치인, 교수, 학자, 언론인 등 중요인물을 망라하고 있다. 이것은 한 개인이 만든 단체의 개인 사업이 아님을 입증해 준다. 총독부와 일본정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 아래 진행된 사업이다. 특히 구관조사나 사료조사를 담당했던 궁내부 규장각(千葉昌胤, 黑崎美智雄), 총독부의 취조국(河合弘民, 鹽川一太郎, 本間久介), 참서관실(秋山雅之介) 관계자가 이 간행사업에 간여하고 있는 사실은 관민의 양면에서 이루어진 조선연구 및 조사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여기에는 이들 외에도 을미사변과 병합에 관련된 대륙낭인들과 중추원에 소속되어 일제에 협력한 한국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륙침략의 선구가 되어 조선에서 활동하거나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간여했던 사람들이다. 고서간행단체의 설립자인 샤쿠오, 아오야기, 호소이는 이들과 함께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침략주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서 조선 관련 연구회나 고서수집 및 간행 활동을 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한말 일제하의 조선고서 간행사업의 설립목적과 운영진, 간행물의 종류와 배포, 간행단체의 성격에 대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고서 간행단체의 설립 시기는 1908년에서 1920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세 단체의 고서간행 사업을 계승하는 것은 1930년대 이후 고서수집과 연구활동을 한 書物同好會⁵⁷⁾이다. 설립 목적을 보면 조선고서간행회는 병합준비를 위한 자료조사와 조선의 역사와 민족성 연구라는 측면에서이다. 조선연구회는 병합을 기념하여 식민통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였고, 자유

57) 櫻井義之, 「自序」, 『朝鮮研究文獻誌』, 明治·大正 編, 1979, 9~11면.

토구사는 3·1 운동에 자극받아 내선융합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2) 고서 간행단체의 임원구성은 조선고서간행회는 명예찬성원, 특별찬성원, 평의원으로 구성되고, 조선연구회는 평의원만 있었다. 자유토구사는 명예고문, 고문, 평의원, 상의원, 사내동인으로 구성되었다. 세 단체가 약간씩 다르지만 명예(특별)찬성원이나, 명예고문, 고문은 특별회비를 내는 후원자였던 것 같고, 세 단체 모두 평의원 중심이었다. 평의원들은 주로 통감부와 총독부의 관료, 언론인, 교수, 학자, 식민지 수탈기구의 수뇌 등 주요 인사를 망라하고 있다. 다만 조선연구회의 경우 평의원만이 있는 것은 궁극하다. 세 단체에 관여한 인물 가운데 일부는 1930년대 이후 서물동호회에서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 3) 고서 간행물을 비교해 보면 조선고서간행회는 83책, 조선연구회는 56책, 자유토구사는 23책이다. 수량 면에서는 조선고서간행회가 월등히 많다. 간행기준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세 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일부 사료성이 있는 책을 끼워 넣었다. 다른 점은 조선고서간행회는 사료성과 만주에 관심을 가졌고, 조선연구회는 일본의 강제병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고서에, 자유토구사는 조선인의 민족성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고서를 중시하여 소설류에 관심을 보였다.

이 글에서는 지면상 고찰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① 앞에서 검토한 민간단체의 고서간행사업과는 별도로 총독부는 취조국과 참사관실을 통해 고서수집과 해제, 간행사업을 벌였다.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 추진된 관민 양측에서의 간행사업의 차이점, ② 조선고서간행회의 간행사업에 자극을 받아 설립된 조선광문회의 고서간행과 재조일본인 단체의 고서간행사업과의 차이점, ③ 1937년 5월 5일 결성되어 사쿠라이(櫻井義之)를 중심으로 1943년까지 활동한 경성 書物同好會의 조선고서 수집 및 연구활동과의 관련, ④ 일본인들에 의한 조선고서 간행 및 수집활동이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별고에서 계속 보완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

<표 1> 조선고서 간행단체의 간행물 비교

조선고서간행회1908	조선연구회1910	자유토구사1920	조선광문회1910
大東野乘1910	角干先生實記1911	朝鮮歲時記1921	東國歲時記(洪錫謨)1911
四郡志(柳得恭)1910	看羊錄(姜沆)1911	廣寒樓記1921	洵陽歲時記(金邁淳)1911
郡縣沿革表1910	平壤續志(尹游)1911	南薰太平歌1921	海東名將傳(洪良浩)1911
北漢志(性能)1910	朝鮮野談集1912	丙子日記1921	碁譜1911
渤海考(柳得恭)1911	小華外史(吳慶元)1914	洪吉童傳1921	熱河日記1912
北輿要選(金魯奎)1911	朝鮮博物誌1914 〈山林經濟〉를 말함	秋風感別曲1922	海東續小學(朴在馨)1912
北塞記略(洪良浩)1911	慕夏堂集(金忠善)1915	瀋陽日記1922	尙書補傳(洪奭周)1913
江華府志1911	漢唐遺事(朴泰錫)1915	沈清傳1922	道里表1913
高麗古都徵(韓在謙)1911	大韓疆域考1915	薔花紅蓮傳1922	林忠愍公實記1913
高麗圖經(徐兢)1911	燕岩外集熱河日記1916	大亞遊記1922	山經表1913
破閑集(李仁老)1911	麗史提綱(俞榮)1916	李朝의 文臣1922	海東譯史續(韓鎮書)1913
補閑集(崔滋)1911	青野漫輯1916	淑香傳1923	大東韻府群玉(權文海)1914
益齋集(李齊賢)1911	李舜臣全集1916	朋黨士禍의 檢討1921	
東人詩話(徐居正)1911	元朝秘史(李文田)1917	燕의 脚1922	
龍飛御天歌(權躡)1911	國朝寶鑑(李容元)1917	各種의 朝鮮評論1922	
紀年兒覽(李萬運)1911	增補文獻備考1917~18	朝鮮의 趣味1922	
文獻撮要(鄭元容)1911		鳳凰琴1922	
新增東國輿地勝覽1912		大東遊記1922	
通文館志(金慶門)1913		侍天敎의 敎旨1922	
大典會通(趙斗淳)1913		東經正義1922	
東國李相國集(李奎報)1913		悲しき國(山地白雲)1922	
新朝鮮及新滿洲1913		鄭鑑錄1923	
海東名臣錄(金堉)1914		晝永編1923	
海行摠載1914		朝鮮의 敎育1923	
稼齊燕行錄1914		罷睡錄1923	
東文選(徐居正)1914		雲英傳1923	
東史綱目(安鼎福)1915			
星湖僊說類選(安鼎福)1915			
東寶錄(尹廷琦)1915			
三隱集1915			
退溪集(李滉)1915			
三峰集(鄭道傳)1916			
重訂南漢志(洪敬謨)1916			
欽定滿洲源流考(阿桂)1916			
朝鮮美術大觀1910			
芝峰類說(李睟光)1915	1916	×	×

(다음 면에 계속)

大東文化研究 제66집

조선고서간행회1908	조선연구회1910	자유토구사1920	조선광문회1910
東國通鑑(徐居正)1912	1914	×	1911
懲忿錄(柳成龍)1913	〈豐太閔征韓戰記〉1912	1921	×
三國史記1909	1914	×	1914
八域誌(李重煥)1910	×	1922	〈택리지〉1912
雅言覺非1911	×	1922	1912
東國兵鑑×	〈朝鮮外寇史〉1915	×	1911
海遊錄(申維翰)×	1915	1922	×
三國遺事×	1915	1923	×
海東繹史1911	×	×	1912~1913
牧民心書×	1911	1921	×
莊陵誌×	1911	1921	×
經世遺表×	1911	×	1915
中京誌1911	×	×	1915
謝氏南征記×	1914	1921	×
九雲夢×	1914	1921	×
京都雜誌(柳得恭)1910	×	×	1911
東京雜記(權以愼)1910	(閔周冕)1911	×	1913
燃藜室記述1912	×	×	1914

*비고: ×는 각 단체 별로 비교하여 간행되지 않은 책을 표시함

투고일: 2008. 12. 24 심사일: 2009. 1. 20 게재확정일: 2009. 2. 9

• 참고문헌

- 『朝鮮』· 『朝鮮及滿洲』· 『朝鮮貴族列傳』· 『總督政治史論』· 『鮮滿の經營』
- 櫻井義之, 『朝鮮研究文獻誌』 明治·大正 編, 1979, 9~11면
- 김태웅,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참서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 『규장각』1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3, 102~103면
- 동선희, 「동광회의 조직과 성격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 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494~499면
- 박현수,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사회·문화조사활동, 『한국문화인류학』 12,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 _____, 「일제의 식민지 조사기구와 조사자, 『정신문화연구』 21-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 서신혜, 「일제시대 일본인의 고서간행과 細井肇의 활동,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 한국사학사학회, 2001
- 禹快濟, 「조선연구회 고서진서간행의 의도 고찰, 『민족문화연구논총』 4,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60~70면
- 최혜주, 「幣原坦의 고문활동과 한국사연구, 『국사관논총』 79, 국사편찬위원회, 1998, 37~62면
- _____, 「靑柳綱太郎의 내한활동과 식민통치론, 『국사관논총』 94, 2000, 195~221면
- _____,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473면
- _____, 「한말 일제하 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5~51면
- _____, 「일제강점기 아오야기의 조선사 연구와 ‘내선일가’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94면
- _____, 「일본 동양협회의 식민활동과 조선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105~117면
- _____, 「잡지『조선』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4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80~87면
- 高崎宗司 著, 최혜주 역, 「조선민족성악론, 『일본망언의 계보』, 한울, 1996, 174~175면

Publication Project of Joseon Ancient Books by the Japanese in the Korean Empir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Choi, Hea-joo

The Japanese in the Korean Empire when it wa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perceived the importance of the Joseon ancient books as 'the sole data' for researching Joseon. However, it was difficult to discover such data, and even when it was found it was hard to understand; thus, the Japanese pursued a project to publish ancient books. This study looked into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publication institutions for ancient books as well as the character of the published books and the publication project. In order to review this problem, first, the study summarize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ation Associate for Joseon Ancient Books, the Joseon Study Institute and the Jayutogusa that were the publication institutions of Joseon ancient books, the organiza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method for the publications. Next, the study classified the type and contents of Joseon ancient book publications of each institution and reviewed their characteristics. Lastly, the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ces in each ancient book publication institution. After all, the publication project, which needed tremendous funds and organizations, was a project that could not be implemented without the full support of superintendent Sone, Governor-General Derauchi, and Governor-General Saito.

Key words : Publication Associate for Joseon Ancient Books, Joseon Study Institute, Jayutogusa, Joseon ancient books, Sone, Derauchi, Saito, Aoyaki, Hosoi, Shakuo